The Mussar of Torah: The Courage to Walk in Faith

Parashat Lech-Lecha — Genesis 12:1–17:27 Haftarah — Isaiah 40:27–41:16 Brit Chadashah — John 8:51–58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in spiritual life is learning to trust Hashem when we cannot see where He is leading us. We often want certainty before making decisions, reassurance before taking risks, and visible results before committing ourselves to obedience. Yet the life of Avraham teaches us that genuine faith does not begin with knowing the outcome. It begins with the willingness to follow Hashem even when the road ahead remains uncertain.

When Hashem commanded Avram, "Go yourself out of your land, from your relatives and from your father's house, to a land which I show you" (Genesis 12:1), He was asking for more than a change of residence. Avram was being called to leave behind the familiar foundations of his life and place his future entirely in the hands of Elohim. The Hebrew expression Lech-Lecha (לֶךְ־לְךָ) carries a deeply personal command: go for yourself, or go toward the purpose intended for you. Avram could not become the person Hashem intended him to be while remaining attached to everything that made him comfortable.

This is where the Mussar lesson begins. Spiritual growth often requires us to leave something behind—not necessarily our homes or families, but our pride, habits, fears, and the desire to control every outcome. We may sincerely desire to draw closer to Hashem while resisting the very changes necessary for that closeness. Avraham reminds us that obedience is not simply agreeing with what Hashem says. It is allowing His words to change the direction of our lives.

Yet Avraham's journey was not without difficulty or failure. When famine struck the land, he traveled to Egypt, where fear led him to conceal the full truth about Sarah (Genesis 12:10–20). Later, when the promised son had not arrived, Sarah and Avram attempted to resolve their uncertainty through Hagar (Genesis 16). These events reveal something important about the human condition: even those who possess remarkable faith can struggle with impatience and fear.

The lesson is not that Avraham never faltered, but that his relationship with Hashem continued to develop through the difficulties of his journey. Faith is not measured solely by moments of courage. It is also revealed in our willingness to recognize our weaknesses, learn from our mistakes, and continue walking in obedience.

This principle is beautifully expressed in Pirkei Avot 5:3, which teaches that Avraham was tested ten times and withstood them all. The significance of these trials lies not merely in his endurance, but in the character formed through them. Every challenge became an opportunity to deepen his trust in Hashem. In the same way, our difficulties can reveal the areas of our character that still require correction. Impatience exposes our desire for control, fear reveals the limits of our trust, and disappointment tests whether our faith depends upon receiving what we expect.

The prophet Yishayahu brings this lesson into sharper focus. In Isaiah 40:27, Israel wonders whether its way has been hidden from YHWH and whether its cause has been overlooked. Hashem responds by reminding His people that He neither grows weary nor loses understanding. Those who wait upon YHWH will renew their strength (Isaiah 40:28–31).

Waiting, therefore, is not necessarily a sign of spiritual inactivity. Sometimes it is the very place where Hashem develops patience, humility, and perseverance within us. Avraham waited many years for the fulfillment of the

promise concerning his descendants. During those years, he had to learn that divine faithfulness does not operate according to human impatience. We too must recognize that a delayed answer does not necessarily mean an abandoned promise.

This understanding also illuminates Yeshua's words in John 8:51: “If anyone guards My Word he shall never see death at all.” The emphasis on guarding the word directs our attention beyond merely hearing or admiring divine instruction. To guard the word is to preserve it within our hearts and allow it to govern our conduct. Just as Avraham responded to Hashem's calling through obedience, Yeshua's teaching connects faithfulness with a life shaped by the word of Elohim.

When Yeshua declares, “Before Avraham came to be, I am” (John 8:58), the conversation turns toward his identity and relationship to Avraham. Yet within the larger discussion, an important moral question remains: what does it mean to claim a connection with Avraham while failing to imitate his faithfulness? Earlier, Yeshua tells his listeners that if they were truly Avraham's children, they would do the works of Avraham (John 8:39). Spiritual inheritance, therefore, must be reflected in spiritual conduct. It is not enough to honor the righteousness of those who came before us; we must seek to practice the virtues that made their lives worthy of remembrance.

This brings us to the heart of Mussar. We may study Torah diligently, speak confidently about faith, and admire the obedience of Avraham, yet still resist Hashem when His instructions challenge our personal desires. The purpose of studying righteousness is not simply to recognize it in others, but to cultivate it within ourselves. Knowledge that does not influence our character remains incomplete.

Avraham's journey also teaches that spiritual maturity is a lifelong process. In Genesis 17:1, Hashem tells him, “Walk before Me and be perfect.” The Hebrew word tamim (תָּמִים) conveys the sense of wholeness, integrity, and wholehearted devotion. Hashem was calling Avraham to live with an undivided heart, faithfully walking before Him in every part of life. Such integrity is developed through countless ordinary decisions to choose truth over convenience, patience over frustration, humility over pride, and obedience over self-interest.

Ultimately, the Mussar of Lech-Lecha teaches us that faith is not merely believing that Hashem will lead us, but becoming the kind of person who is willing to follow Him. Avraham's greatness was not found in knowing every step of his journey, but in continuing to walk with Hashem through uncertainty, weakness, testing, and waiting.

Perhaps the most important question we should ask ourselves is not simply, “Do I have the faith of Avraham?” but rather, “Am I allowing that faith to transform the way I live?”

For the true journey of Lech-Lecha is not only a journey from one place to another. It is the lifelong journey from self-reliance toward trust, from impatience toward perseverance, and from merely knowing the word of Hashem toward faithfully living by it.

레흐 레하의 무사르: 믿음과 순종을 통한 영적 성숙

Parashat Lech-Lecha — Genesis 12:1–17:27 Haftarah — Isaiah 40:27–41:16 Brit Chadashah — John 8:51–58

영적인 삶에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엘로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인간은 흔히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확실한 결과를 알고 싶어 하며,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보장을 원하고, 순종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확인하려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참된 믿음이 결과를 미리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준다. 참된 믿음은 앞에 놓인 길이 불확실할지라도 엘로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려는 자세에서 시작된다.

엘로힘께서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고 명령하셨을 때, 이는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아브람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온 익숙한 환경과 관계를 뒤로하고, 자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엘로힘의 손에 맡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히브리어 표현인 레흐 레하(לֶךְ־לְךָ)는 매우 개인적인 명령으로,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또는 "너에게 주어진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아브람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것에 계속 의존하면서 엘로힘께서 의도하신 사람으로 성장할 수는 없었다.

바로 여기에서 무사르의 교훈이 시작된다. 영적인 성장은 종종 무엇인가를 뒤로하는 결단을 요구한다. 그것이 반드시 집이나 가족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교만과 오래된 습관,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결과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인간은 진심으로 엘로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변화에는 저항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순종이 단순히 엘로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준다. 참된 순종은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여정에는 어려움과 실패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그곳에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라와의 관계에 관한 진실을 온전히 밝히지 않았다(창 12:10–20). 이후 약속된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사라와 아브람은 하갈을 통하여 자신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결하려 하였다(창 16 장). 이러한 사건들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드러낸다. 곧 뛰어난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갈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아브라함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여정에서 겪은 여러 어려움을 통하여 엘로힘과의 관계가 계속 발전하였다는 사실이다. 믿음은 용기를 나타내는 순간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는 자세에서도 믿음은 드러난다.

이러한 원리는『피르케이 아보트』5 장 3 절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열 번의 시험을 받았으며, 그 모든 시험을 견디어 냈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시험의 중요성은 단순히 그가 어려움을 견디어 냈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그의 인격이 형성되었다는 데 있다. 각각의 시련은 엘로힘을 향한 신뢰를 더욱 깊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도 자신의 인격 가운데 여전히 교정되어야 할 부분을 드러낼 수 있다. 조급함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드러내고, 두려움은 신뢰의 한계를 드러내며, 실망은 자신의 믿음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는 데 의존하고 있는지를 시험한다.

예언자 이사야후는 이러한 교훈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사야 40 장 27 절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길이 야훼께 숨겨져 있으며, 자신의 사정이 여호와께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엘로힘께서는 자신이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며, 그분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음을 상기시키신다. 또한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사 40:28–31).

그러므로 기다림이 반드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기다림은 엘로힘께서 인간 안에 인내와 겸손,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길러 주시는 과정이 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조급한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배워야 했다. 우리 역시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반드시 여호와의 약속이 폐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요한복음 8 장 51 절에 기록된 예슈아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표현은 단순히 여호와의 가르침을 듣거나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신의 행동과 삶을 다스리는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하여 엘로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듯이, 예슈아의 가르침 또한 신실함을 엘로힘의 말씀에 따라 형성되는 삶과 연결한다.

예슈아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 8:58)고 선언하셨을 때, 대화의 초점은 예슈아의 정체성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로 옮겨 간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전체를 살펴보면 여전히 중요한 도덕적 질문이 남는다.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본받지 않으면서 그와의 관계를 주장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예슈아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8:39). 그러므로 영적인 유산은 반드시 영적인 행실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 앞선 세대의 의로움을 존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의 삶을 기억할 가치가 있게 만든 덕목들을 자신의 삶에서도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무사르의 핵심이 있다. 인간은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믿음에 관하여 확신 있게 말하며, 아브라함의 순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작 엘로힘의 명령이 자신의 욕망과 충돌할 때에는 그분의 뜻을 거부할 수 있다. 의로움을 공부하는 목적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서 의로움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 안에 의로움을 길러 내는 데 있다.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지식은 아직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지식이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또한 영적인 성숙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가르쳐 준다. 창세기 17 장 1 절에서 엘로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타밈(תָּמִים)은 온전함과 성실함, 그리고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나타낸다. 엘로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행할 것을 요구하셨다. 이러한 온전함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편리함보다 진실을 선택하고, 불평보다 인내를 선택하며, 교만보다 겸손을 선택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수많은 일상적인 결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궁극적으로 레흐 레하의 무사르는 믿음이 단순히 엘로힘께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음을 가르친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자신의 여정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불확실함과 연약함, 시험과 기다림 속에서도 엘로힘과 동행하는 길을 계속 걸어갔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나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의 방식과 인격을 실제로 변화시키도록 허용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레흐 레하의 참된 여정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삶에서 엘로힘을 신뢰하는 삶으로, 조급함에서 인내로, 그리고 엘로힘의 말씀을 단순히 아는 데서 그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평생의 영적 여정이다.